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한 줄도 좋다, 그 동요**

노경실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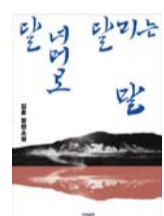
‘가을밤’, ‘강아지’, ‘고드름’, ‘구슬비’, ‘기차길 옆’, ‘나뭇잎 배’... 위에 열거한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어린이와 관련이 있다. 아니 어른들과도 연관이 있다. 그렇다. 바로 동요다. 우리들 귀에 익숙한, 어린 시절 불렀던, 아니 지금도 부르는 동요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아이들은 동네에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전통놀이를 즐겼다. 위의 동요 외에도 ‘산토끼’, ‘동네 한 바퀴’, ‘반달’, ‘엄마야 누나야’, ‘옹달샘’, ‘자전거’도 곧잘 불렀다. “우리집 강아지는 복숭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꼬리치고 반갑다고 멍멍멍” 귀에 익숙한 동요 ‘강아지’는 광주 출신 시인 설강(雪崗)김태오가 작사를 했다. 김태오는 윤극영 등과 함께 ‘조선동요연구협회’를 결성하고 동요운동을 펼쳤던 예향 광주가 낳은 문인이다. 우리가 잊고 있던 동요를 추억하고 어린시절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 발간됐다. ‘복실이네가



족사진’의 저자인 노경실이 펴낸 ‘한 줄도 좋다, 그 동요’가 그것. “동생들을 위해 만났던 이야기를 지어주다 작가가 됐다”는 저자는 23세에 신춘문예에 등단한 뒤 지금까지 그림책부터 어른을 위한 책들을 많이 펴냈다. 이번 책에는 저자가 바둑이랑 친구들이랑 골목을 누비며 부르던 노래가 담겨 있다. 비단 저자 외에도 유년의 풍경 또한 담고 있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시작하는 동요 ‘자전거’는 고흥 출신 목일신 시인이 노랫말을 썼다. 열두 살 소년이었을 목일신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그는 목사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부친이 선교사로부터 기증받은 자전거를 타고 통학했다. 아동문학가로 활동했던 목일신은 이후 탁구부와 정구부 감독 겸 선수로도 활동했다. 이처럼 책에는 모두 25편의 주옥같은 동요가 소개돼 있다. 아울러 저자의 동요에 얽힌 단상은 물론 작사가와 작곡가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저자가 책을 쓴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가 고민하지만 떨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삶의 모습과도 무관치 않다. “4차산업, 인공지능, 온갖 멀티시스템, 유비쿼터스, 이노베이션... 난만 떠편 인간은 스스로를 얼마나 자랑질하는지! 바벨탑을 어찌나 잘도 쌓는지!... 스마트폰도 없는 바이러스!-에 두 눈 뜬 인간은 늘 전전긍긍하는 시절이다. 그래서 서인지 더, 더... 노래하고 싶다.” 책 곳곳에서 만나는 추억의 보따리는 아련한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던 풍경들이라 정겹게 그치지 않는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 배’/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오’라는 ‘나뭇잎 배’ (박흥근 작사·윤용하 작곡)를 흥얼거리다 보면 그 시절로 역류해가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어릴 적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뭇잎 배’라는 동요를 불렀다. 그리고 노랫말처럼 나도 동생들과 초록 잎사귀로 어설피게 배를 만들어서 물을 가득 담은 세숫대야에 띄우고 놀았다.” 저자의 얘기에서는, 언젠가는 엄마아빠 품을 떠나 인생 배길을 항해해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묻어난다. 그 나뭇잎 배 하나로 먼 나라도, 우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동심이 그리워지는 건 인지상정이다. 책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다. 저자는 어느 날 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픈 일을 품은 채 거리를 걸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바라본다.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 떠오른 건 별과 반달이다. 그러면 서 생각한다. “반달 속 토끼도 나처럼 혼자잖아. 토끼가 탄 배는 통나무를 쪼개어 속을 파서 만든 위험하 기지 않는 작은 배야. 그것도 내 인생 배랑 닮았어.” 동요 ‘반달’ (윤극영 작사 작곡)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을 건넌다.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걸었지만 ‘내내 우주의 비밀을 푼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배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외롭고, 고단하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배였지만 토끼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라고. 어쩌면 동요는 보고싶은 사람을 닮았다. 작가는 다시 그 시절 동요를 부를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흥얼거림만으로도 또 다른 추억으로 새겨질 일이기에. (테오리아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달 너머로 달리는 말** 김훈 지음

작가 김훈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은 바로 문장과 표현의 힘이다. 그만큼 그의 문장은 하나의 스타일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훈이 최근 장편소설 ‘달 너머로 달리는 말’을 펴냈다. “문명과 야만의 뒤엉킴에 저항하는 생명의 힘”이라는 수사처럼 이번 작품은 달의 뒤편을 탐사하듯, 문장들은 긴장으로 가득하다. 서사의 대강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나하’라는 강이 있고,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북으로는 초, 남으로는 단이라는 나라가 인근을 지배한다. 초원에서 이동생활을 하는 초는 유목집단이다. 이들은 문명을 등진 채 육체의 힘만으로 야생의 삶을 살아간다. 당연히 이들은 성도 쌓지 않고 신전과 무덤이 없으며 문자를 배경하는 집단이다. 그와 달리 단은 한곳에 정착해 사는 농경집단이다. 문자를 숭상하고 왕궁을 짓고, 건물들 곳곳에 세운다. 이들 두 세력은 화합이 불가능한 집단인 탓에 이들에게 전쟁과 일상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수평적 세계관과 수직적 세계관으로 상징되는 유목과 농경은 야만과 문명을 상징한다. 작가는 숙명 같은 긴 전쟁을 특유의 예리한 눈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작품은 일종의 판타지 소설이다. 예외없이 작가는 잘 버린 칼처럼 예리한 문장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작가의 역사소설 3부작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의 일리두기를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김훈의 소설은 ‘오직 소설’이고 ‘다만 소설’일 뿐이다. 작가는 “모텔로 삼은 고대국가나 시대는 없다. 초는 유목적이고 단은 농경적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바탕도 다르다. 인간집단 사이 적대적의 뿌리와 전개 과정을 나는 늘 의아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파람북·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김택상 색, 채의 건축술** 김택상 외 지음

김택상은 단색화 전통을 새롭게 잇는 대표 화가라는 수사가 따른다. 또한 “‘포스트 단색화’ 또는 ‘단색화 1.5세대’라는 평단에 분류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단색화 담론을 넘어서는 더 무거운 미의식의 세계를 자신의 작품과 독특한 방법론을 통해 모색하는 작가”로도 통용된다. 출판사 수류산방에서 ‘아주까리 수첩’ 시리즈 네 번째로 발간한 ‘김택상 색, 채의 건축술’은 김택상과 석학 홍가이, 미술평론가 김원식이 저자로 참여했다. 옛 노래 제목인 ‘아주까리’는 1942년 조명암이 작사한 노랫말 ‘섬 떠난 그이의 손에 아주까리 먹인 수첩이 쥐여 있거나’에서 보듯,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책은 올해 1월 열렸던 ‘색과 빛 사이에서’의 발표작을 중심으로 작업실 풍경과 제작 과정, 2019년 옹골거리 개관전 ‘담색물성’ 출판작 등 근작을 밀도있게 소개했다. 알려진대로 김택상은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대신 캔버스 천에 색 입자가 오랜 시간 스며들거나 침전되게 작업을 하는 작가다. 이번 책은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 즉 다른 시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평면회화를 입체적인 오브제로, 하나의 작품을 필름의 시퀀스로, 바꾸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책은 두 편의 평문과 두 편의 소개글이 수록돼 있다. 김택상의 작품을 오래 전부터 ‘담화’로 명명했던 홍가이 박사는 “예술은 내가 좋아하는 이에게 이걸 봐! 재미있지? 어때?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김원식 평론가는 ‘빛과 색: 색채의 공간성과 장소성’이라는 글에서 ‘텍토닉’한 속성을 포착한다. 건축의 기술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연결하는 개념인 텍토닉이 김택상의 작품이 지니는 특징이라는 것이다. <수류산방·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 전찬일 지음

‘봉테일’ (봉준호+디테일)로 칭해지는 영화감독 봉준호 탐구서가 출간됐다. 영화 평론가 전찬일이 첫 평론집 ‘영화의 매혹, 잔혹한 비평’ 이후 12년 만에 두 번째 책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을 내놨다. 저자는 10년에 걸쳐 이뤄진 봉 감독과의 인터뷰에 그 앞뒤로 봉준호의 영화세계 ‘봉월드’ 입문을 위한 총론적 안내와,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일종의 보론들, 에필로그를 작성해 덧붙였다. 봉 감독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의 개’ (2000)부터 ‘기생충’ (2019)까지 7편의 장편 영화에 대한 리뷰를 담았다. 여기에 ‘백색인’ (1993)과 ‘지리멸렬’ (1994)부터 ‘흔들리는 도쿄’ (2008)까지 6편의 단편을 다시 보며 진중한 내용이 더해졌다. 첫 장편 ‘플란다스의 개’는 “많은 이들의 재독해·재평가를 기다리는 문제작”으로, ‘기생충’은 ‘가족 희비극을 넘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역대급 완성도의 문제적 걸작’으로 평했다. 애초 저자는 장훈, 이창동, 류승완, 이준익 등 봉준호 외에 대표적인 명장들의 인터뷰를 모아 한국 영화 100주년이었다 지난해 인터뷰집을 낼 계획이었으나,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을 계기로 감독 봉준호, 인간 봉준호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단일컨텐츠 감독의 단편들은, 단편으로서 독자적 미학적 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봉월드’에 다다르기 위한 또 다른 가교를”이라며 “영화 보기 50년, 영화 스타디 38년, 영화 비평 27년 동안 한 특정 감독의 단편영화들을 이처럼 깊이 있고 폭 넓게 파고들고 훑어 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작가1만4000원> /전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목포·나주·서흥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현명방향 062)354-9000

http://www.smstardental.com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기아이어거즈 공식지정치과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외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www.saewoori.com since 2002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현재 2011,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추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광주 화정동 농성역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